

##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 경 혜 · 김 주 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ies and Social Interactions of the Elderly in rural Korea

Han, Gyoung Hae · Kim, Joo Hyun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A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rural Korea has increased rapidly, the quality of life of the rural elderly has become a major public and policy concern. In this regards, most of the researches on rural elderly have focused mainly on the "risk factors or problems" of rural areas, ignoring the "positive or protective aspects" of rural community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possible positive influence of rural community on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and to examine the linkage among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ies, social inter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rural elderly. To achieve this goal, a community case study was conducted in four Korean rural village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and in-depth interviews (person-to-person, group interviews). All the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reflective qualitative analytic techniqu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All of the four villages have strong community ties and provide contexts which make it possible for older people to share their everyday life with neighbors and to actively participate as a community member. Although the four villages were geographically not far from each other, the pattern of social interaction and the nature of everyday-life of the elderly were nevertheles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each community, the relationship history among the community members, and the shared experience of historical events in recent Korean history. Elderly men have smaller networks and have less frequent contact with community members than elderly women. The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ocial interaction, community tie, community case study, rural elderly, quality of life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연구비(지역연구 2003-072-BM1005)와 2005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한국사회학회 2003년도 후기 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접수일: 2005년 1월 29일    채택일: 2005년 2월 24일

**Corresponding Author:** Han, Gyoung hae    Tel: 82-2-880-8748

E-mail: ghhan@snu.ac.kr

## I. 문제제기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농촌의 과소화, 노인단독 가구의 증가 및 부양부담의 증가, 그리고 농촌의 복지 인프라 부족 문제와 연결되어 상당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학문적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논의 및 연구들은 주로 농촌노인의 삶의 질의 열악함 및 농촌지역의 환경적 불리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삶의 장으로서 도시와 다른 어떠한 역동성을 갖는가, 나아가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혹시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놓여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역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에 비하여 농촌지역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오랜 유대 관계망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가 아직 남아 있고,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이 노인들의 고립을 막고 일상에 있어 긍정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Rowe와 Kahn(1998)은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을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성공적 노화의 필수요소라는 점에는 많은 다른 학자들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같은 지역에 오래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생애과정을 지켜본 친족, 친구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왕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 농촌지역 노인들의 삶의 건강성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사회적 환경특성이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삶의 질에 어떤 구체적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탐색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삶의 장으로서 어떤

역동성을 갖는가, 농촌지역이 가지는 특성이 노인의 일상을 담는 그릇으로서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모습 및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농촌노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제한점은 농촌노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계량적 조사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계량적 실증조사 자료에 의한 연구들은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의 전반적 경향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농촌노인들의 삶의 모습은 변수로 분해되어 농촌지역의 현지성과 노인들의 삶의 경험의 구체성은 증발되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의 구체적이고 현실적 모습과(정혜숙·김혜순 2004) 농촌노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전해주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농촌지역 노인들의 삶에 대한 심층적 자료수집과 탐색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농촌노인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이러한 제한점에 주목하여, 농촌마을의 생태적, 사회적 특성과 농촌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고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동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 II. 선행연구 고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은 '성공적 노화'의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지적될 만큼 노년기 적응의 중요한 지표이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노년학자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실증연구들(Beck & Page 1988; Litwak & Kullis 1987; Lowenthal & Haven 1968; Mullins & Dugan 1990; Rebecca et al. 2002; Seeman & Berkman 1988)에 의하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세대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한국 농촌의 현실에서, 노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풍부한 공동체적 유대감에 기초한 풍부한 사회적 관계망은 농촌마을이라는 지역사회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Cantor(1979)는 비공식 지원망의 기능에 대한 위계적 보상모델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가까운 곳에 부재할 때, 친구나 이웃들의 비 혈연관계로 위계적인 대체가 보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시노인에 비하여 자녀와의 동거율이 낮고 비동거 자녀와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향이 높은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같이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일상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일 가능성이 높다.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사일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이주가 잦지 않아 이웃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점, 또한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집성촌이 유지되는 곳이 많아서 도시지역보다 노인들이 친척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는 경향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농촌노인들은 가족 외에도 ‘서로를 아주 잘’ 아는 사회적 관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은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을 낮게 하고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혈연,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할 때 비혈연,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대체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지지의 부재상황으로 이어진다는(황미영 1999)점과 대비하여 볼 때 농촌지역 사회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지역사회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 가지는 이러한 긍정적 기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실제로 이를 체계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도시노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연구해 왔고(김정석·김익기 2000; 최정아·서병숙 1992),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로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세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거나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이민아 2000; 이형실 1999; 한경혜 1996; 한경혜·홍진국 2000). 따라서 농촌노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반적 양상과 내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농촌노인들의 일상의 모습 및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또한 소수의 연구들도 농촌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하여 주로 개인의 특성, 즉 개인단위의 자원으로 접근하여 왔고, 생활터전으로서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가지는 특성이 그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관계망 특성, 사회적 상호작용의 현황 및 일상의 모습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측면이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가지는 이러한 제한점에 주목하여, 노인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환경 특성이 농촌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상호작용의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생태적 환경이라 함은 농촌마을의 자연-공간 환경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산촌, 평야, 하천의 위치 등 마을의 자연적 환경 조건과 마을내 가옥이나 노인을 위한 시설의 배치 등 공간적 구조 특성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환경특성은 산업, 인구구조 등 마을의 현재 사회경제적 조건 뿐 아니라, 전쟁, 산업화 등 근대 한국의 역사적 격동기와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마을공동체로서 지역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한 역사적 경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개념화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현재’의 사회적 관계는 ‘한국사회가 겪어온 독특한 역사적 시간과 구체적 삶의 장소로서의 공간이 접목되는 지점(김귀옥 2000)’에서 구체화되는 복합적 결과물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 III. 연구방법

앞에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는 기존의 농촌노인에 대한 연구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주로 양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농촌노인의 삶에 대해 심층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양적연구는 가설검증, 변수간의 인과관계 탐색 및 연역적 이론형성에 효과적이지만, 사회현상과 과정을 통계수치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탈맥락적인 표현양식으로 변환시켜 버림으로서 농촌지역의 현지성과 노인들의 삶의 경험의 구체성이 증발되어 버리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양상과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이라는 지역사회가 가지는 특성, 그리고 이 둘 간의 연계성은 다양한 관련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매우 복합적인데, 사회현상과 과정을 몇 개의 변수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양적연구는 이러한 복잡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적(holistic) 관점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양상과 이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사회의 모습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노년학 분야에도 실증주의 연구패러다임이 지배적이어서 분석적(analytic) 연구, 통계분석 수치를 제시하는 연구가 진정한 과학적 연구이며, 일상생활에 대한 서술적(descriptive) 연구는 비과학적이라는 편견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다. 그러나 현상의 서술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활동(김영천 1997)이며, 양적연구의 결과로부터 얻기 어려운 관점과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연구방법이다. 특히 특정사례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연구대상이나 연구주체에 접근할 때 유용하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농촌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망, 그리고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공간으로서 사회적 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계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사례연구가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참여관찰 방법 중에서도 특정집단의 문화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자연 그대로 일어나는 상황과 활동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방식, 즉 '전체적인 기술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전체적 기술의 방식으로서 다양한 연구자료들(연구자의 주관적 느낌, 판단, 방법적 반성노트, 관찰기록들, 대화들)을 자료로 이용한다. Spradley(1980)는 관찰의 대상으로 연구현장에 관련된 인물들과 그들의 활동, 이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느낌, 물리적 장소인 공간과 연구현장에 존재하는 물건, 사건들(events)을 관찰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Spradley의 지침을 기초로 하여 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시설, 지역주민 및 노인들의 상호작용의 상황 및 내용, 이들간의 정서적 거리 등에 주안점을 두어 관찰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전라남북도의 4개 군에서 각 1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총 4개의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sup>1)</sup> 마을의 선정은 각 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후보마을 명단을 받은 후 마을의 크기, 생태적 환경, 접근 용이성, 마을 인구 중 고령노인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팀이 최종 선정하였다. 두 개 마을은 인구규모가 작은 자연부락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두 마을은 면사무소가 소재한 곳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진이 각 마을당 1주일씩 마을에 상주하면서 참여관찰, 일대일 면담, 집단면담을 병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3개 마을에서는 연구팀이 마을 내에 위치하는 경로당에서 묵으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1개 마을에서는 민박을 하였다. 연구팀은 5명이 기본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는 2003년 7, 8월에 수행되었다.

참여관찰은 노인정과 모정 등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 뿐 아니라, 도라지

1)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서 '장수지역'으로 주목되는 전라남북도의 4개군 지역의 사회, 경제, 생태적 환경특성과 그 지역 거주 초고령 노인의 특성에 대해 조사하는 다학제적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전체연구는 4개군 전역을 조사하였으나 본 사례연구를 위해서 4개군에서 각각 1마을을 선정한 것이다.

가기 등 공동경제활동 장소, 마을 주민들의 집 등 다양한 장소 및 상황(setting)에서 수행되었다. 연구팀은 1-2명으로 개별 조를 이루어 노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특성,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였다. 일대일 면접은 노인 뿐 아니라, 각 마을의 이장과 마을담당 복지사, 해당 면의 복지담당 과장 혹은 계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노인의 가족원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도 병행하였다. 집단면접은 노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연구자가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하여 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집단내 역동을 보이는가를 관찰하여 각 마을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모든 면접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양해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필사본으로 만들어 분석 자료화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 마을의 역사적, 생태적 환경 및 경제적 특성,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망 특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마을의 환경적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의 특성과의 연계성을 탐색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 IV. 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4개 마을의 기본 생태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특성 및 마을 거주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생활세계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 1. 청파리<sup>2)</sup>

###### 1) 기본 생태적, 사회적 환경 특성

청파리는 읍내와는 버스로 3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을로, 집들이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가까운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길게 이어져 자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알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이장님은 이를 '이 마을에서 이웃은 남과 친척의 중간정도쯤

된다고 보면 맞는다'고 표현하였다. 마을의 총 76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64가구로 마을에 젊은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부업으로 도라지를 까고 있었는데, 좀 젊은 층에게는 복분자 따기가 인기있는 부업이었다. 마을과 주변에 가게나 슈퍼 등이 없어서 간단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장으로 나가야 했다. 마을입구에서 바로 탈 수 있는 버스는 3시간에 한번 꼴로 있고, 조금 걸어 나가는 곳에서 탈 수 있는 버스는 1시간에 한번 꼴로 있었다. 보건소나 복지관 등의 편의 시설도 마을 내에 없었다. 따라서 마을 노인들에게는 읍내, 혹은 군에 있는 병원 등에 가는 것이 '시간 맞추어 나가야 하는 일'인 셈이다. 평생에 걸친 농사일과 함께 도라지 까는 일 등으로 '온 몸이 쉬시지 않는 곳이 없는' 노인들은 의료시설 이용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적 지원으로는 생활보호자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 외에 마을에 있는 2명의 독거 남성노인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빨래 해주기, 반찬 갖다주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 2)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마을 입구에는 버스정류장과 모정이 있었는데, 모정은 커다란 나무밑에 잘 지어진 정자로 그 마을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라고 마을사람들이 이야기하였다.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남녀 구별 없이 나와 앉아 더위를 식힌다고 한다. 모정을 시작점으로 하여 마을입구에서 산 중턱까지 난 길을 중심으로 집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길을 따라 오르다보면 마을의 중턱에 할머니 노인당과 할아버지 노인당 건물이 따로 있다. 할아버지 노인당의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반면, 할머니 노인당에는 매일 여성노인들이 모여들곤 하였다. 할아버지 노인당 뿐 아니라 마을 다른 곳에서도 남성노인들이 모여 앉은 모습은 거의 관찰할 수가

2) 이 글에서는 마을이름과 노인이름 등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없었는데, 남성노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있는 논밭으로, 밤에는 노인의 집으로 방문을 해야 했다.

마을 입구에는 도라지를 까는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작은 건물이 있으며, 여기서도 할머니들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sup>3)</sup> 할머니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라지를 까면서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였다. 연구팀은 도라지 까는 일을 거들고, 할머니 경로당에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할머니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하였는데, ‘마실 간다’고 흔히 이야기하는 서로간의 집을 방문하는 상호작용은 거의 없고, 또래 노인들을 만나고 싶으면 노인당, 도라지 일터, 모정 등으로 나온다고 하였다. 이런 곳에 “통 얼굴을 비치지 않는” 노인이 소수 있는데,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흔치 않다는 점은, ‘모임의 장소’에 나오지 않는 노인들이 정보 및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망에서 일정 정도 제외될 수 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마을에 집을 둔 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연구팀은 이 마을의 노인들이 관계망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outsider)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팀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조용하던 그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사건’이어서, 둘째 날에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러 다니는데 이미 마을주민 대부분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반면 연구팀에 대해 전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은 소수의 노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관계망에서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노인들이었다.

3) 도라지 작업장은 몇 년 전에 군에서 지어준 건물인데 이 마을 할머니들의 상호작용에 큰 배경이 되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함께 작업하면서 마을의 주변 이웃이야기, 일상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마을의 소식뿐만 아니라 농담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나가는 길에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뭔가 물어보는 할머니도 계셨다. 이곳에서 함께 작업을 도우면서 몇 시간 정도 앉아있자 주요 관계망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었다. 할머니들은 작업해서 번 돈으로 작업장 보일러 기름값에 보태고, 함께 읍내에 오리고기 등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기도 하신다.

4) 도라지는 한 상자를 까면 4000원을 받는데, 한 상자를 까는데 보통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한다. 중국산 도라지라서 냄새도 강하고 오래 까면 손의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독하다. 그렇지만 현찰을 손에 넣는 일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인기있는 부업이다. 복분자 따기는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하루 일당이 2만 8천원이어서 노인들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했다. 노인들 중 누가 복분자 따는 일군으로 뽑혀갔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노인들이 앉아서 설왕설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도 그 일 할만한데 농장과 마을의 중간에서 사람을 뽑는 그 마을의 아무개가 나를 빼놓아서 기분 나쁘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도라지 까는 일이 노인들의 부업으로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의 노인들은 이 일거리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다. 도라지 까기 일거리가 노인들을 작업장으로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한가하게 소일하는 노인들의 모임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도라지 까기를 하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고 같이 좀 놀고 마실 다니고 그러냐는 질문에 “도라지 까느라고 눈이 빨건데...”라고 부정적인 어투로 대답하여, 이 일거리의 도입이 마을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립된 노인은 더욱 고립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도라지 까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별이가 좋은 복분자 따기 일거리에 “일군으로 뽑혀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을 내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을<sup>4)</sup> 알 수 있었다.

관계망 참여노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현재 삶의 모습, 마을일과 마을사람들에 대한 잡다한 정보를 주고받음과 함께, 서로의 과거에 대한 회고, 재구성 작업을 공유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회상’은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특성인 것으로 지적되며, 노년기 자아정체성 확인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서구에서 은퇴촌, 양로시설 입주노인들을 위한 ‘살아온 생애 회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 마을에서 살아온 청파리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에 대해 기억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촌 지역사회가 이런 측면에서 건

강한 노화를 위해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마을에는 도시에 나가 살다가 퇴직과 함께 최근 1-2년 사이에 마을로 돌아와 사는 노인부부 가구가 세 집이 있었다. 광주에서 개인택시를 몰던 김\*\*할아버지, 교장으로 퇴직한 박\*\*할아버지는 어려서 살던 집을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들어와 살고 있고, 여수에서 경찰로 근무했던 김\*\*씨는 부인의 친정마을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잘 설계된 양옥집을 새로 짓고 마을로 들어왔다. 이들은 모두 마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마을주민들과 잘 섞여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2. 분파리

### 1) 기본 생태적, 사회적 환경 특성

분파리는 읍내와의 직선거리는 그리 멀지 않으나, 읍에서 분파리까지의 도로가 \*\*땀을 끼고 구불구불 돌아 나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20분 정도를 와야 한다. 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계곡이 있고 \*\*땀 주변의 풍광이 좋아 마을 가까운 곳에 여기저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있다. 마을입구에도 매운탕 등의 음식과 숙박을 함께 제공하는 음식점 겸 숙박시설이 있다. 그리고 마을 앞에는 \*\*읍으로부터 서울, 광주 등으로 가는 잘 닦여진 2차선 도로가 나있다. 최근 군에서 이 마을 주변을 관광지로 부각시키고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은 산 계곡에 위치하는데, 마을 가운데로 맑은 물이 흐르는 작은 하천이 있고 집들은 이 하천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 마주보는 형식으로 들어서 있다. 이 마을은 총 46가구의 작은 마을로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32가구였다. 이 마을에는 논밭을 소유한 사람이 적어 농사는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가 댐 건설과 함께 수몰된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난 사람도 꽤 있고 그 이후로 논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주민들도 만날 수 있었다. 한봉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봉을 하

고 있는 집들이 많았는데, 그 규모는 집 뜰에 몇 통 키우는 집이 있는가 하면, 수십 통을 하는 집도 있는 등 다양하였다.

마을 입구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간호사가 출퇴근하며 근무하고 있었다. 진료소 건물은 개량주택 형태로 친근한 가정집의 분위기를 보였다. 마을 입구 큰나무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건진료소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파스나 간단한 약품을 구하고, 찜질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차비를 들이지 않고<sup>5)</sup> 쉽게 건강과 관련된 진료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가 있는 보건진료소가 마을 내에 있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매우 큰 혜택을 알 수 있었다. 하천을 사이에 두고 보건진료소 건너편에는 작은 교회가 있다.

### 2)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는데, 마을에 들어서서 사람은 누구나 이 나무 밑을 지나치게 되어 있어서 이 나무는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장소이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의 역할을 하였다. 마을 가운데 있는 하천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꽤 큰 역할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천을 사이에 두고 마을의 집들이 서로 마주보며 일자로 늘어서 있는 형태인데, 하천의 양쪽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거리이므로 주민들 간에 하천을 앞에 두고 마주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관찰되었다. 하천을 따라 다섯 곳에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다리가 놓여있었는데, 이 다리 또한 마을주민들이 나와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쪽 다리 위에 앉아서 저쪽 다리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자노인들은 하천에서 빨래를 하기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리 위는 햇살이 뜨거운 낮보다 밤에 사람들이 모여 앉는 장소로 쓰였다. 전체적으로 마을주민들간에 활발한 유대가 있었다. 이 마을도 청파리와 마찬가지로

5) 노인들은 읍에 나갔다가오는 차비를 꽤 큰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로 여성노인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함께 노는데 비해, 남자노인들이 모여있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나무 밑에는 주로 여자노인들이, 그리고 다리 위에는 주로 남자노인들이 모여 앉았는데, 여자노인들은 무리를 지어 앉아 큰소리로 웃고 떠드는 반면, 남자노인들은 대개 1-2명이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마을 회관에 경로당 간판이 붙어 있고, 같은 진물을 할머니들 방과 할아버지들 방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경로당은 여름에는 이용하지 않아 문이 잠겨 있었는데, 날이 추운 겨울에는 각자 집의 보일러를 돌리는 기름값을 아낄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된다고 한다.

마을이 좁고 사생활이 개방되어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의 생활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sup>6)</sup>. 이러한 특성이 분파리 마을 주민들의 노화에 대한 생각에 흥미로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면 좋지 않다. 자식들에게 짐 되고 좋은 꼴 못본다”라는 대답과 함께 그 마을의 91세 먹은 할머니의 경우를 자신들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예로 들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자식, 며느리 흉을 보고 다니고, 아들은 술 먹으면 할머니에게 빨리 죽으라며 심한 소리를 하는 등 가족관계가 좋지 않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평판도 좋지 않아서 마을주민들에게 약간 따돌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보면서, 오래 살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대를 가진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동네분의 말

씀으로는 이 마을은 워낙 작고 대로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아서 예전에 ‘난리통에 시끄러웠던 시절’에도 전쟁초기에는 비교적 조용히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마을주민들이 모두 3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소개’를 가기도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무사히 동네를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하였다. 마을 자체가 워낙 작은 탓도 있겠지만 젊은 시절 아기를 등에 업고, 조금 더 큰 아이는 손을 잡아 걸리고 그렇게 피난시절을 함께 겪었던 이유인지 동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할머니랑 제일 친한 분은 누구세요’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다 친혀, 누구랑 더 친하고 덜 친할 것도 없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노인들이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행한 집단 인터뷰 때 뿐 아니라 단독 인터뷰에도 “끼리끼리만 친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친혀”라는 대답을 자주 들었다. 빨치산들의 활동 거점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전쟁경험과 피난 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한 점, 그리고 마을의 중심을 하천이 관통하고 그 주변으로 주택이 들어선 지리적 특성상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을 사람들을 마주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 이렇게 서로를 ‘모두가 다 친한’ 사이로 인식하게 한 요인들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보건진료소 간호사와 교회 사모를 면접하였는데, 이들은 마을주민의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마을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은 목사 사모는, 마을주변이 관광지화 되면서 “옛날에는 그냥 썩서 같이 나눠 먹던 옥수수를 내다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내것 네것 별로 안가리던”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적 유대가 예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관광지 근처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장사를 하는 노인들이 최근 많이 늘었다. 마을 근처에서

6) 이렇게 가족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지역사회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은 현상을 가족학적 용어로는 가족의 ‘경계 투과성(boundary permeability)’이 높다고 한다. 근대화,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지역사회와 가족의 특성이다. 산업화와 함께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정서적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는, 낮은 경계투과성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마을에서는 아직도 지역사회와 가족간의 경계투과성이 높은 곳이 상당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 옥수수나 복숭아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 마을 교회의 목사 사모 말에 의하면, 이리저리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봉꿀을 서울에 비싼 값으로 판다고 한다. 연구팀에게 뱀술과 꿀을 팔려는 마을노인들도 계셨다.

### 3. 오곡리

#### 1) 기본 생태적, 사회적 환경 특성

면 소재지로서 마을의 규모가 우선 크고(7) 면 사무소, 보건소, 종합복지관, 농협지소, 초등학교, 교회가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로 마트 등의 꽤 큰 규모의 슈퍼마켓, 작지만 여러 개의 식당, 택배회사, 세탁소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 양 편에 면사무소, 보건소, 종합복지관, 농협지소, 크고 작은 슈퍼마켓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초등학교가 있다. 상세한 마을 지도를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면사무소 직원이 이야기할 정도로 열기설기 얽혀있는 골목으로 주택가는 이루어져 있다.

오곡리는 조선시대에 인근의 대표적인 양반마을이어서 과거에는 마을 주위에 '4대문'이 있었고 문지기가 지키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하였고 밤 10시가 되면 4대문을 일제히 걸어 잠갔다고 한다. '의관을 정제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옷갓마을'이라고 불렸는데, 연구팀이 만나본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이에 대한 이야기로 마을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4대문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나 사대문 터를 볼 수 있고 유서 깊은 서원이나 사당 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들도 여럿 있다.

이 마을의 주 산업은 논농사와 함께 하우스 재배로 수박과 거봉 포도를 특화하고 있다. 삼원 기업이라는 시멘트 생산 공장이 25년 동안 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이 때문에 인구유입도 많아 마을 가구수가 약 1000호를 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4년전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후 별다른 산업이 없어 마을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

오곡리는 마을의 규모가 커서, 1구부터 8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구마다 1개씩 마을회관과 같이 쓰는 노인당이 있으면서 또한 별도의, 중앙 노인당이 1구에 있다. 중앙 노인당은 오곡리 전체 노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노인당으로 주로 연세가 많으신 '상노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sup>8)</sup>, 남자노인을 위한 노인당과 여성노인을 위한 노인당이 따로 있었다. 남자 노인당은 '수서당'이라고 불리는 팔각 기와 건물로, 조선시대 고종12년에 축조되어 초기에는 서당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넓은 대청마루와 방 세 개가 있는 일자 형태의 건물로, 잘 가꾸어진 나무와 연못이 있는 정원을 가진 운치 있는 노인당이였다. 할머니들이 모이는 중앙 경로당은 지은지 3년 남짓 된 새 양옥 건물로 넓은 방 두 개와 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실을 건물내에 갖추고 있었다. 노래방 기기와 텔레비전, 간단한 운동기구와 꽤 고가의 적외선 안마/자동마사지 침대도 자리해 있었다. 남녀 노인당 모두 설비가 훌륭한 편에 속하였고, 관리상태도 좋았다.

#### 2)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오곡리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반마을'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민들이 공유하는 자부심이다. 집성촌의 성격이 강하여 안, 오, 조, 유씨 일가가 중심 성씨로 13-16대째 이 마을에 뿌리내리고 살았으며,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 마을 곳곳에 이들 집안의 사당과 서원이 남아 있다. 마을노인들은 이 마을이 양반마을이었다는 이야기 끝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양반, 상놈이 어디 있느냐"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면 뺨 맞는다" "요즘은

7) 주민등록상 파악되는 오곡리의 현재 총인구수는 1,188명이다. 그러나 면사무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실제 오곡리에 거주하는 인구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여러 이유에서 주민등록상으로부터 이곳 거주로 되어있고 인근 도시에서 거주하는 젊은 층이 있다고 한다.

8) 그러나 실제로는 각 구에 있는 노인당에서도 85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중앙 노인당에도 70대의 비교적 젊은 노인들도 섞여 있었다.

일 열심히 하고 돈 있는 사람이 양반이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과 ‘상놈’, ‘마을사람’과 ‘외지사람’을 구별하는 의식이 남아 있음을 이곳저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노인들의 상호작용에서도 이런 측면이 관찰되었는데, 그 한 예를 남자노인들의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남자노인들은 ‘수서당’에 모이는데, 마을의 남자노인들 중앙반의 후손이며 면장, 교장, 철도청 과장, 향교회장 등의 사회활동을 한 노인 6명은 ‘도봉묘’라는 사당에서 별도로 모인다<sup>9)</sup>. 연구팀을 안내하던 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의 “중요한 노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연구팀을 안내한 곳도 도봉묘였다. 이 노인들은 오전에는 각자 불일을 보고 오후에 이곳에 모이는데, 모이지 않는 시각에는 자물쇠로 대문을 잠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남성노인들의 모임의 장소가 계층적 요소를 강하게 반영하며 두 곳으로 분화된 것인데, 이러한 계층적 요소에 대하여 그 모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노인들도 적어도 의견상으로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조사 둘째 날, 도봉묘 노인들과 함께 수서당을 들렀는데, 수서당에 모여있던 20여명의 노인들이 넓은 대청마루를 도봉묘의 노인들과 노인회장에게 내어주고 좁은 뒷마루에 좁혀 앉는 모습에서 위계적 관계에 익숙함을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들 노인당에서도 양반마을의 흔적과 관계에서의 위계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 할머니들은 모두 서로를 ○○댁이라고 칭호를 붙여서 부르고 있었는데, 양반만이 이런 택호가 있으며 자신들은 양반이므로 이렇게 서로를 칭하지만 “상놈은 택호가 없고 ○○어매라고 부른다”고 설명해주었다. 보통 15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매일 노인당에 모여 놀다가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데, 할머니들은 앉는 자리가 대개 일정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88세로 나이도 연장자에 속하고 마을의 대표적 대갓집의 양반 할머니인 \*\*댁 할머니는 항상 선풍기 바람이 가장 잘 드는 쪽의

벽 중앙에 기대앉고, 그 주위에 대강 나이 순서에 따라 다른 할머니들이 둘러 앉는다. 그런가하면 오\*\*할머니는 86세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가장 허드렛일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화장실의 휴지 등을 마당에서 모아 태우는 일을 항상 도맡아 하고, 언제나 문쪽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조사 나흘째 되던 날, 연구팀과 가까워진 \*\*댁 할머니가 “우리 중에도 상놈이 있어”라면서 컵속 말로 오\*\*할머니를 지목했는데, 평소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연구팀이 짐작하던 바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오\*\* 할머니는 본 연구팀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인당에 오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섞여 웃어 가며 이야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자리’에 대해 별 불만이 없어 보였다.

오곡리 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할머니 노인당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노인당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방문한 첫날, 수서당에서 약 20여명의 할아버지들이 대청마루 가득하게 모여 앉아 복날 뒷끝 음식으로 닭튀김을 드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평균 15명 정도의 할아버지들이 오후 2-3시쯤 되면 수서당에 모여 돈을 걷어 간식도 함께 사다 먹기도 하면서 소일을 한다고 하셨다. 도봉묘에 모이는 노인들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새벽에는 마을입구의 작은 산에 같이 오르고, 오후에는 도봉묘에서 만난다. 농촌마을에서 여성노인들이 노인당이나 마을의 이곳저곳에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남자노인들이 모여 소일을 하는 모습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남자들이 모여 앉아 함께 이야기하고 소일하는 양반문화가 이런 방식으로 현재에도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서당의 노인들 이야기로는 함께 모여 마을 일에 대해 의논하고 농사정보도 교환하던 대동계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수서당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매달 15일과 30일,

9) 도봉묘는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와 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이다. 일년에 두차례 유림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도봉묘에 따로 모이는 노인들은 모두 13대-16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집안이며, 이 노인들 중에는 안향의 후손이 있다.

한달에 두 번씩 노인당과 주변 청소 및 제초를 한다. 이외에도 마을 중앙을 흐르는 금\*천의 주변을 청소하는 등 마을 내 시설과 자연보호 활동도 한다.

#### 4. 연수리

##### 1) 기본 생태적, 사회적 환경 특성

연수리는 총 인구규모가 296명으로 비교적 큰 마을이다. 같은 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거리도 멀지 않아 경제적으로 비교적 활성화된 마을인 것으로 보였다. 마을에는 오폭리와 마찬가지로 면사무소, 보건소, 종합복지관, 농협출장소, 여러 개의 식당 등이 있고, 296명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3명으로, 비노인층 인구가 다른 마을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잘 닦여진 도로가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면서 마을을 지나가고 있어 교통도 매우 편한 곳이고 버스로 자주 지나간다.

관광지가 가까우므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마을주민들이 많지만, 노인들은 주로 고추농사 등 밭농사를 짓고 있다. 소를 키우는 집도 여럿 있었는데, 그 규모가 꽤 큰 집들이 많았다. 인구수에 비하여 경지면적도 적은 편이 아니고 산나물, 약초 등 산에서 나는 부산물을 관광객에게 직접 팔거나 관광 식당에 팔아서 돈을 꽤 벌 수 있기 때문에 “홍년이 들어도 먹고 살 것이 아주 없는 곳은 아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 일대는 여순 반란사건, 6.25를 겪으면서 우익과 좌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곳에서 오래 산 분의 이야기로는 “그때 똑똑한 사람 많이 죽었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절대 리더가 되려하지 않으며” 밖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것을 싫어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2)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연수리 할머니 노인당과 할아버지 노인당은 한 울타리 내에 별도 건물로 마련되어 있다. 할아버지 노인당은 넓은 방 세 개와 큰 대청, 부엌, 샤워시설을 갖춘 넓은 화장실로 이루어진 꽤 큰 한옥으로, 오래된 집을 개보수한 건물이다. 옛 가

옥의 특성이 살아있어 더운 여름이지만 집안은 시원하였다. 마당을 가로질러 할머니 노인당은 새로 지은 양옥에 마을회관 사무실과 함께 있는데, 넓은 방과 수세식 화장실, 부엌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할머니 노인당은, 한 낮은 물론 밤에도 아주 더워서 오래 있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선풍기 설비도 없었다. 부엌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른 파 두 뿌리가 들어있는 것 외에는 비어있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할머니 노인당이 오랜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을(적어도 여름에는) 짐작할 수 있었다.

여름에 노인들은 주로 나무그늘이나 모정에 모인다. 이 마을의 모정은 \*상각이라는 이름의 잘 지어진 정자형태였는데,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곳으로 큰 느티나무 옆에 위치하고 있고 바람이 잘 들어 시원하다. 할머니들은 \*상각 바로 옆의 느티나무 밑에 스티로폼을 깔아 평상에 앉았다.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가능할 거리였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모정에 모이는 할아버지들은 모두 함께 모여 앉은 형태가 아니라 꽤 넓은 모정의 이곳저곳에 2-3명씩 떨어져 앉아있는데, 대개 하루 6-7명 내외의 할아버지가 모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할머니들은 이 밖에도 면사무소 옆의 큰 나무아래 평상이나 마을 앞 하천가 나무 밑 등 마을 곳곳에서 모여 앉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리의 규모가 할아버지보다 크다. 각 장소에 모이는 할머니들은 항상 일정한 구성원들이 모이는데 각자 집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여서 놀다가 식사 때가 되면 각자 집으로 가서 해결하는데 겨울에는 노인정에서 점심을 함께 해서 먹는다고 한다.

1년에 한 번 마을 청년회,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노인관광을 주선하는데 연구팀이 머무는 동안 마침 그 행사가 있어서 그 준비과정을 지켜 볼 수 있었다. 마을회관 앞뜰에 가마솥을 걸고 물을 데우는 등 여러 명이 분주하더니, 작은 돼지를 잡아서 삶는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돼지 먹따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고, 여러 명의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로 왁자지껄한 것이 규모는 작지만 잔치판 분위기였고, 관광 전날 이미 마을분들이

삶아진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 소주잔을 함께 하는 모습에서 공동체적 유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인들은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편이었는데, 자신들의 나이나 자녀가 몇 명인지 등과 같은, 다른 마을에서는 쉽게 이야기 해주실만한 질문에 대해서도 “뭘 그런걸 물어” “그거 알아갖고 뭐하게?” 혹은 “뭇썸, 묻지마”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간혹 이런 질문에 대해 선선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노인이 있더라도, 옆의 노인들이 “그거 알아 뭐하게?” 하면서 대화에 끼어들면, 이야기를 잘 시작하신 노인도 대개는 입을 다물었다. 조사과정동안 연구팀은 매일 밤 조사를 마친 후 함께 모여서 그날 마을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은 자료 및 마을을 관찰하면서 얻게 되는 생각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개별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다음날 후속으로 조사할 사항에 대해 의논하곤 하였는데, 노인들과의 라포 형성 및 조사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연구팀이 마을주민 및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라포 형성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도 검토해보았는데, 다른 마을 3곳을 이미 조사를 한 경험으로 볼 때 연구팀 자체가 이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는 듯 하였고<sup>10)</sup>, 면에서의 협조도 다른 세 마을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연수리가

다른 마을과 차이가 나는 점은 별로 없었다.

이 마을 노인들이 연구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은 다른 세마을과 확연히 구별되는 연수리 노인들의 특징으로 파악되었고 우리 연구팀에게는 설명을 요하는 분석주제가 된 셈이다. 이 마을이 인구규모가 크며 관광지에 가까워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전통적 농촌지역사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점을 우선 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관광지와 근접한 마을이라는 점에서는 분파리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마을과 유사하고, 인구규모가 크고 전형적 농촌마을의 형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옹곡리도 이 마을과 다를 것이 없었으므로, 이 해석은 설득력이 적은 듯 하다. 연수리의 역사적 환경을 또 다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을이 여순반란사건이나 6.25등 역사적 격동기를 특히 치열하게 경험한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소개를 갔던 분파리와 달리 연수리는 외부에서 소개를 왔고,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반면 이 마을주민들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외부인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지키는 방법은 입을 다무는 것 아니었을까, 그리고 전쟁을 치루고 살아남은 노인들에게 아직도 그 당시의 생존전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해석

10) 전체 조사과정에서 연구팀은 노인들을 위하여 사탕, 과자 등의 간식을 준비하였고, 마을주민들을 만나면 큰소리로 웃으며 인사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기 등의 행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하였고, 노인당에 머무는 동안 노인당 내부를 깔끔하게 청소하고 노인당에 할머니들이 모이면 커피를 타드리기도 하면서 마을주민 및 노인들과 우호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보면, 연수리를 제외한 조사마을 세곳에서는 모두 마을 주민이나 노인들이 연구팀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첫 번째 마을 청파리에서는 조사 첫날부터 된장을 퍼다주는 할머니, 감자를 가져다 주는 할머니 등 많은 할머니들이 김치, 양파, 풋고추 등을 가져다 주어서 연구팀이 다 먹기에는 너무 많을 정도였다. 그래서 감자를 찌거나 김치전을 부쳐서 노인당 주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라포가 형성되었다. 분파리에서도 할머니들은 연구팀을 자신들 집에 데리고 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할머니들이 모여앉으신 곳에 연구팀이 끼어 앉아 질문하면 가족과 자신들의 생애사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없이 털어놓았다. 마을에 머문 셋째날이 되자 주민들은 연구팀을 만나면 잘 아는 사람 구름이 마을을 떠나기로 예정된 전날은 자신들 밭에서 열무뽕이 걸저리 김치를 담고 밭을 하여 연구팀을 위한 점심상을 차리셨다. 떠나는 날 아침에는 15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배웅하러 오셨는데, 노인당에서 쓰는 회비로 구입했다는 포도 한 상자를 5명의 연구팀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서 선물로 건네주시기도 하였다. 청파리와 옹곡리는 현재 사용중인 노인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이 그곳에서 묵는 것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반면 연수리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노인당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당에 짐을 푼 첫날 밤, 여자노인회장이 와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곳에 묵는가, 이장이나 면장이 마음대로 결정했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노인당 청소 깨끗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등 조사과정 전반에서 우호적이지 못한 분위기였다.

이 가능하겠다.

## V. 논의

이상 장수벨트 지역의 4개 마을을 사례로 하여 각 마을의 생태적, 사회적 환경특성과 함께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망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하겠다.

첫째, 사례마을 네 곳에서 모두 공동체적 유대 관계가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마을의 다양한 공간에서 노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노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제외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마을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친족관계로 연결되는 주민들이 많은 점, 친족관계가 아니라도 오랜 기간을 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한국 역사상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지내왔다는 점,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적 정서가 이들의 삶에 익숙한 형태로 자리잡아왔다는 점 등의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대체로 마을의 역사나 농사일, 지역주민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대화의 주제에서 제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어느 시골마을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커다란 늙은 나무가 사례마을에서도 마을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의 장소역할을 하였고, 나무 밑 그늘에는 50-6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주민들이나 90대의 초고령 노인들 모두 섞여 앉아 있어서, 도시에 비하여 ‘연령 통합적(age-integrated)’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지자체에서 지어준 모정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 모정은 마을주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에 위치하고, 열린 공간의 형태(지붕이 있는 정자)로 되어 있어서 이 또한 지역주민들이 부담없이 걸터앉아 쉬어가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추운 겨울철에는 군에서 난방비 보조가 나오는 노인당이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노인들의 점심을 준비하거나(연수리) 노인들 스스로가 점심을 준비하여(청파

리, 오탁리)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훌륭한 지원체계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건강이 극히 나빠 집밖으로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마을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수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사례조사 마을의 노인들에게 일상의 상당 정도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팀이 만나본 노인들은 대부분 이런 환경을 즐기고 있었고, 도시에 대하여 “현관문만 닫으면 갇힌 듯한 느낌이 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길을 잃는 곳, 자녀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리고 경로당에 가 보지만 쉬일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녀가 도시에 있더라도 그대로 농촌지역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였다. 농촌지역에 노인단독가구나 독거노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족이 떠난 농촌지역에서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 조사 사례마을에서 관찰한 내용들은 농촌지역의 공동체적 특성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 지역적으로 매우 근접한 4개군의 농촌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삶의 여건 및 일상의 구체적 모습은 마을간에 상이한 부분이 상당정도 관찰되었다. 각 마을의 사회심리적 자원 및 지원망, 상호작용의 특성 등 현재 생활세계는 마을구조 등 생태적 환경특성, 한국역사의 전체적 맥락 내에서의 각 마을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및 마을 구성원들의 관계사가 함께 얽혀 만들어내는 역사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마을구조의 차이가 지역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상당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을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을 중심으로 가옥이 배치되어 모든 지역주민들이 그 길을 왕래하는 청파리나,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하천과 그 주변의 나무가 마을의 중심이 되는 분파리는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과 노인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에 연수리는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도로가 지

나고 있고 가옥들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과 노인들이 마주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되고 있었고, 모정이 주로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모정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노인들은 모정까지 오지 않고 집 근처의 작은 나무 밑이나 골목에 몇 명이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청파리나 분파리에 비하여 노인들과 비교적 젊은층과의 상호작용도 덜 빈번하고 상호작용 단위의 규모가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조사결과에서 흥미롭게 관찰된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이다. 오피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여성노인들이 비교적 활발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남성노인들은 관계망의 규모가 작고 상호작용 빈도도 여성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들은 노인당도 거의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마을공간에서 모여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남성노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구팀이 주로 개별 방문을 해야 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에 비하여 많은 것이 여성들의 모임이 활발한 한 원인일 수 있으나,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한편,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관계 지향적이라는 특성상 젊은 시절부터 관계망 참여에 익숙해 왔고, 그러한 유대가 축적된 결과로 여성들의 상호작용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훨씬 활발하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연구팀이 만나본 남성노인들 중 상당수가 “함께 모여 떠드는 것은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4개의 사례마을 중 유일하게 남성노인들의 모임이 활발한 오피리는 그런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다른 3개 마을에 비하여 마을전체 인구규모가 커서 남성노인들의 수가 많다는 점이 우선 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연수리도 마찬가지여서 이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오피리가 전통적으로 양반마을의 성격을 가지고 현재에도 그러한 흔적이 사회관계의 위계적 성격으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건데, 남

자들이 모여 앉아 함께 이야기하고 소일하는 양반문화가 이런 방식으로 현재에도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겠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마을의 대소사를 남성들이 모여 의논하고 농사정보도 교환하던 대동계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서로 상이한 계층에 속하는 남성노인들이 함께 모이지 않고, 공간적으로 분화된 모임의 장소가 별도로 제공되는 것도 남성노인들의 모임을 활성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 든다. 여성들은 사회적 계층이 상이하더라도 임신, 출산 등 생활주기(life cycle)상의 공통점을 가지므로 공동의 화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기 쉬운데 비하여 남성노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형편, 직업, 사회적 위세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넘는 모임이 여성에 비하여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들 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사례조사 마을에서의 이러한 남녀차이를 가져오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석이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고립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고, 개별면접 결과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표현하는 숫자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남성 독거노인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사례들이 꽤 있었다. 남성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단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한편, 오피리는 남성노인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여성노인들의 모임도 4개 마을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름에도 매일 노인들이 모여 점심식사를 마련하여 함께 먹고 할머니 노인당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립된, 외로운 노인’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이다. 연구자가 관찰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으로는 노인리더의 역할, 지자체 노인복지담당 사회복지사의 헌신, 오피리 노인들의 자녀 세대들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할머니 노인당의 회장할머니와 총무할머니는 모두 80대 연령이지만 건강하였고,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앞장서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면서 할머

니들의 모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는 노인 중에 리더라고 할만한 사람이 없어, 농사일에 바쁜 젊은 세대들이 한창 바쁜 여름철에 노인들을 위한 식사마련을 중단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옩곡리는 노인복지 담당 사회복지사가 그 마을 출신으로, 현재에도 그곳 가까운 마을에 살면서 헌신적으로 담당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사례 마을과 차이가 나는 점이었다. 할머니들에게 “김여사”로 통하는 복지사는 마을주민 및 노인들과 상당히 친밀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고, 김장 담궈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초고령노인 생신축하 케익 전달하기, 생활보호대상자 일감주선 등 다양한 경로로 노인들을 자주 접촉하고 있었다. 군으로부터 노인당에 짐질안마기가 배정된 것도 복지사의 덕이라고 노인들은 믿고 있었다.

옩곡리가 다른 마을과 차이가 나는 또 한가지는 이 마을 자체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별다른 산업이 없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옩곡리 노인들의 자녀들 중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은 자녀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양반마을로서 배움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서도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상당수의 노인들이 도시에서 전문직, 고위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녀들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녀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나 현물 지원으로 노인당이 훌륭한 설비를 갖추 수 있었을 뿐 아니라 1년 내내 모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총무할머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노인들이 1년에 1만원씩 내서 모이는 회비나 군에서 지원되는 난방비로는 “한 두어달 경비로 쓰면 다 없어질” 정도로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옩곡리는 다른 3개 마을에 비하여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농촌마을의 자원은 ‘공간적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 ‘관계적 경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 앞에서 제시한 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의 모습에 기초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하여 보았다. 탐색적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사대상사례에 가깝게 다가가 살펴보면서 많은 ‘질문’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현재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노년학에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점 중의 하나가 노인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성이다. ‘농촌’ 혹은 ‘농촌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제기가 필요한데, 본 조사는 농촌지역의 사회적 관계망의 성격이나 농촌노인들의 삶의 모습과 생활세계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그런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떤 측면의 다양성이 지향되고 어떤 구체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하는 점들이 본 조사결과가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들이며, 앞으로 우리가 탐색해야 하는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귀옥(2000) 지역조사와 구술사 방법론. 한국사회과학 22(2) 1-36.
- 김영천(1997) 학교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35(5) 135-170.
-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이민아(2000) 우리나라 노인의 세대간 상호지원과 거주형태. 한국노년학 20(3) 129-142.
- 이형실(1999) 농촌 부부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09-120.
- 정혜숙·김혜순(2004) 생활터전으로서의 지역: 생애사와 지역연구의 통합적인 연구방법의 모색과 활용.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65-78.
- 한경혜(1996)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 및 생활의 활력화 연구. 농촌진흥청 편. 농촌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연구.
- 한경혜·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황미영(1999)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 27-46.
- Beck SH, Page JW(1988) Involvement in activitie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retired men. Activities, Adaptation, and Aging 11(1) 31-47.

- Cantor MH(1979) Neighbors and Friends : an overlooked resource in the informal support system. *Research on Aging* 1 435-463.
- Litwak E, Kulis S(1987) Technology, proximity and measure of kin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649-661.
- Lowenthal MF, Haven C(1968) Interaction and adaptation :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20-30.

- Mullins LC, Dugan E(199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family and friendship relation on residents' loneliness in congregate housing. *The Gerontologist* 30 377-383.
- Rowe JW, Kahn RL(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